



## 평단의 주목 받는 세권의 평론집

유종호 · 김인환 · 황종연 교수 평론집 잇따라 나와

문단경력과 문학 적 입장이 서로 다른 세명의 평론가가 평론집을 잇따라 상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연세대 유종호 석좌교수의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민음사), 고려대 국문과 김인환 교수의 《기억의 계단》(민음사), 동국대 국문과 황종연 교수의 《비루한 것의 카니발》(문학동네)이 바로 그것.

유종호 교수의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는 시와 시론에 관한 메타비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서정적 진실의 실종> 등 8편의 평문이 실린 1부는, 백석 · 정지용 · 윤동주 등속의 작품을 분석한 시평론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유교수는 이즈음 우리 시평론이 “꼼꼼히 읽어서 뜻을 파악하기 전에 자의적인 해석에 열을 올리고 상식의 거부를 지적 수월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논자가 설정한 가설적 범주나 뼈대에 맞추어 그 예증으로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의 시가 당초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논의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한다. 2부는 문학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지은이의 진단과 대안이 펼쳐졌고, 4부에는 현대 한국문학사를 회고한 논문을 실었다.

김인환 교수의 《기억의 계단》은 ‘현대문학과 역사에 대한 비평’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현대 한국문학사를 역사적 지평에서 조명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그 기원에서 살펴보면서 ‘단계론’을 적용, 현대문학을 새롭게 평가했다. 10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관심있게 읽어볼 만한 것은 우리 문학의 ‘계보학’을 시도한 5장부터 7장까지다. 5장 <한국 현대소설의 조류 — 현실탐색의 방법과 역사적 상상력>에서 지은이는 역사와 계급의식을 표나게 내세운 리얼리즘을 우리 소설사의 주류로 평가했다. 이 조류는 신채호에서 발원해 염상섭과 이기영을 거쳐 안수길, 박경리, 김주영, 황석영, 최명희, 박완서, 최일남, 이문구, 홍성원, 전상국, 박영한, 송기원, 윤홍길, 이동하, 고시홍 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지은이의 분석. 주류 소설과 구별되는 실험소설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6장에서는 최인훈, 이청준, 박상룡, 최창학, 조세희, 김원우, 이인성, 최수철 등을 뛰어난 실험소설작가로 평가했다. 7장 <이상시의 계보—한국현대시의 참조틀에 대하여>는 한국현대시의 계보를 정리했다.

황종연 교수의 첫 평론집 《비루한 것의 카니발》은 1990년대 한국소설의 성과를 정리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90년대 소설의 특징을 “도발적인 위반충동을 공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정의하면서, 위반과 전복의 시각에서 90년대 소설을 분석했다. 이 책에서 지은이가 비평 대상으로 삼은 작가는 장정일, 최인석, 신경숙, 윤대녕, 하창수, 구효서, 박상우, 은희경, 서하진, 전경린, 한창훈, 백민석 등으로, 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망라됐다. — 이권우 기자

## 진단학회, <한국고전심포지엄> 시리즈 1차분 펴내

한국학 연구자들의 고전 연구성과 묶어

진단학회가 우리 고전의 연구성과를 묶은 <한국고전심포지엄> 시리즈(일조각) 가운데 1차분으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과 최한기의 《명남루충서》, 《악학궤범》, 홍대용의 《담헌서》 등 네 권을 출간했다.

진단학회는 ‘옛날의 서적으로 후세에 남을 만한 책’을 고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1973년 처음으로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의 성과는 학회지인 <진단학보>에 실렸으며 1980년부터 연구성과 5~6개를 묶어 <한국고전심포지엄>이란 제목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러나 진단학회는 한 권의 책에 여러 개의 고전이 묶인 이런 형식이 각각의 주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1고전 1책’으로 개편해 새 시리즈를 펴내기로 했다.

새 시리즈의 제1권으로 출간된 《동국이상국집》은 국민대 박종기 교수의 <<동국이상국집>에 나타난 고려시대상과 이규보> 등 4편의 논문을 실었

며, 제2권 《명남루충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권오영 교수의 <최한기의 사회사상>을 비롯한 4편의

논문을 담았다. 《악학궤범》은 건국대 이범직 교수의 <<악학궤범>의 예약론> 등 4편의 논문을, 그리고 제4권 《담헌서》는 서울대 박희병 교수의 <홍대용 연구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비롯한 4편의 논문을 실었다.

진단학회는 “앞으로 개최되는 고전연구 심포지엄의 결과를 이전처럼 학보에 일단 게재한 다음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라며 “이미 간행된 복합형식의 단행본도 내용을 보충해 새 시리즈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갑수 기자

